"교구 시노드를 살며, 교회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 천주교 대전교구
# 민 족 화 해 위 원 회

**수신자** 성직자 전체

(경 유)

**제 목**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한 대전교구 사제회의 3차 결과 공유

대전교구 민족화해위원회에서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이하며,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고민하고, 나누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가졌습니다. 논의한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유하오니, 신부님들께서 사목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아래 -

1. 일시 : 2019년 3월 15일(금) 14:00-17:00
2. 장소 : 대철회관 1층 강의실
3. 참석자 : 12명
4. 강사 : 강미진 기자 (NK 데일리 북한 출신 기자)
5. 나눔 주제 :

| | |
|---|---|
| 주제 1. | 북한의 현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북한의 긍정적인 면에 대하여 나눠보고자 합니다. |
| 주제 2. | 북미정상회담 이후 구체적인 변화에 따라서 교회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

#첨부 : 1. 결과보고서 1부.
2. 강의 내용 요약 & 나눔 요약 1부. 끝.

**천주교대전교구민족화해위원장**

기안자 **강절로** 총무 **이진희** 위원장 **박제준**

협조자

시 행 대전민화위 2019-15 (2019.3.18) 접 수 ( . . )

주 소 대전시 동구 동산초교로 45번길 26-14(34556)

전 화 (042)636-1331 전 송 (042)637-1331 djhwahai@gmail.com 비공개/공개

# 첨부 1.

##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한 대전교구 사제회의 3차 결과보고

대전교구 민족화해위원회에서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이하며, 북한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와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아래와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아래 －

1. 일시 : 2019년 3월 15일(금) 14:00－17:00
2. 장소 : 대철회관 1층 강의실
3. 참석자 : 12명
4. 강사 : 강미진 기자 (NK 데일리 북한 출신 기자)
5. 일정 :

| 시간 | 내용 | 담당 |
|---|---|---|
| 14:00-15:00 | 강의 | 강미진 기자 |
| 15:00-15:30 | 질의응답 | 강미진 기자 |
| 15:30-16:00 | 휴식 | |
| 16:00-17:00 | 나눔 | 박제준 신부 |

# 첨부 2.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한 대전교구 사제회의 3차**

**2019년 3월 15일(금) / 대철회관 / 강미진 기자**

## 강의 요약

-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보기. 그것이 너무 힘들다. 김정일 위원장을 미워했지만, 2015년부터 북한의 생활이 점점 나아지고, 북한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색안경을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1. 북한의 변화

- 남한의 드라마를 통해서 자본주의적인 개념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 외부의 정보들을 북한 주민들이 선호하는 편이다.
- 중국에 여행하는 북한 주민들을 통해서 북한의 상황을 알 수 있다.
- 2010년부터 예전의 갇혀있는 북한의 분위기를 점점 벗어나게 된다.
- 북한 여성들의 의복 변화들을 통해서 인식의 변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전에 여성에 대한 의복제한이 있었고, 짧은 치마는 통용되지 않았었지만, 최근 사진들을 통해서 짧은 치마 등의 많은 변화를 알 수 있다.

- 그러면 왜 탈북자가 생기는가? 국가적으로 경제력이 높다고 모든 국민들이 잘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처럼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이라고 다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남한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다.

- 남한의 드라마가 많이 통용되고 있다. 왜 드라마를 보는가? 북한이 가리고 있는 역사적 진실을 알 수도 있고, 남한의 문화도 접할 수 있기 때문.
- 탈북민들(약 3만3천명)이 가족들과 통화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기도 한다. 이전에는 화장품이나 의류를 보내주고는 했는데, 최근에는 노트북, 핸드폰, 사진기 등을 필요로 한다.
- 자본주의의 개념, 노동에 따른 월급 등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다.

- 2011~2012년 즈음에는 '몇 만명' 정도만 휴대전화를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몇 백만 명'이 핸드폰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가격도 남한 자본 기준으로 80만원 정도 하는 북한 산 핸드폰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 거주하는 환경이나 사용하는 물건들이 남한의 일반 가정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다.

2. 북한 시장화 확산

- 입출금 가능한 카드를 가지고 대학생들이 사용한다. 은행에서 송금이 가능해졌다. 남한 은행에서 보면 기본적인 업무가 가능한 정도는 된다. 이전에 비하면 많이 발전한 것이다.

- 유치원 아이들이 의사놀이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의사 등의 직업이 인기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아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 등도 품질이 많이 좋아졌다. 북한의 경공업의 수준이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다.
- 북한의 시장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
- '단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줄어들었다. 장마당 단속이라는 것이 완화되었다. 현지 주민들은 2012년 김정은 위원장 이후에 시장 통제를 안하는 것으로 기억한다.
- 2011~2012년 시장조사와, 2015년 시장조사 결과 시장 매대 수가 엄청나게 증가. 품종별로도 숫자별로도 늘어났다.
- 기본적인 삶의 질,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먹고 사는 것?)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

3. 중앙정부에 대한 의식변화

-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이 사라짐.
- 김정은의 통치방식이 고위관료들은 엄하게, 주민들에게는 관대하게.
- 2014년부터 주민들의 복지, 세계에서 지적하는 인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여성인권이나 아이들 보육원 및 고아원의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
- 고아원 아이들이 먹는 것이 부족하지 않고, 의복도 좋은 옷을 입고 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 화장품 등의 품질이 좋아지는 것을 통해서 여성들의 경제생활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 가전제품, 주방용품들이 다양해지고 있고, 북한의 주민들이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 이전처럼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환경은 아니다.
- 남자 중심의 사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있다.
- 하지만, 군인 가족인 경우 아직도 남성이 경제권 및 가부장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 운송사업도 많이 활발해지고 있다.

4.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

- 통일에 대한 인식을 많이 심어주고 있다. 후대에게도 통일에 대한 열망을 심어주기 위한 선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 백두산부터 제주까지 이어지는 한 민족이라는 인식.

## QnA

- 북한도 진보와 보수가 있는가?
☞ 북한은 진부와 보수단체의 구분이 없다. 아직까지 북한은 수직구조이다. 가장 위에 노동당이 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일괄적인 지시를 따르는 형식이다.

-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시장경제부분에서는 어떤가?
☞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변화가 있는 현재에는 그런 경제적인 변화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편이다. 경제적으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제재가 빨리 풀리기를 바라고 있다.

- 교육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이전부터 북한에 대한 고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모습이 진짜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측면에서 탈북자가 생기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은 없는지? 그 현실은 어떤지? 탈북자가 북한 가족들에게 물건이나 돈을 보낼 때 어떻게 하는지?
☞ 예전에는 가족들에게 많은 압박이 있었다. 북한 입장에서 탈북민의 가족이 북한 전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에 대해서 감시나 관리는 하겠지만, 어떤 불이익(처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그에 따른 처벌을 계속하면, 북한 주민들이 정부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아질 것이고, 그것을 북한 전체적으로는 좋은 것은 아닌 상황. 이전에는 탈북민 가족들을 추방했는데,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들이 더 많이 퍼지게 되는 역효과가 났다.
물건을 보내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 만일 보낸다고 하면, 중국을 통할 수밖에 없

다.

-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북한의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통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만일 통일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북한의 경제 수준이 되어야 할까?

☞ 북한의 경제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북한에서 2002년부터 시장경제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저축'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 자본을 모아두고 가정의 앞날을 계획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 전에 군대에 있을 때, 북한에 대한 교육을 들은 적이 있는데, 북한에서 남한에 대한 부정적인 교육과 핵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는 어떻게 다를까?

☞ 북한은 핵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핵이었다. 그렇게 생명처럼 가지고 있던 핵을 한꺼번에 전부 내놓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 현재 국제 상황에서 북한은 어느 정도 핵을 포기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 해외여행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구글 맵'을 사용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구글 맵'이 될까요?

☞ 북한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위성으로 세계 지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 그렇다면 북한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어떤 것인가?

☞ 북한 스마트폰은 북한에서 제공하는 정보만 제공된다. 북한 내부에서의 시스템에 국한된다. 인터넷은 사용이 안 된다. 물론 정부에서 검증된 많은 다양한 정보들은 많이 제공되고 있다.

- 장마당 세대에 개인의 재산이 인정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북한에서 개인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가?

☞ 북한의 경제 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이다. 하지만 어느정도 정부와 연결되어 있지만, 개인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이 다수 있다.

- 배운 적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다. 북한 사회주의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 남한에서 아파트에 사는데, 옆집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이웃과의 소통이 잘 안 된다. 북한의 경우 이사할 때, 동네 주민들이 함께 짐싸고, 같이 짐풀고 함께 식사하기 때문에 소통할 수밖에 없다. 남한은 인정이 많이 메마른 것 같은 느낌이지만 북한은 조직적인 시스템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챙겨주는 분위기가 있다. 특별히 남한 사회는 경제적인 수준(자동차, 아파트 평수 등)으로 사람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인품이나 예절, 단정함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둘 다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장점들은 서로 합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가톨릭 신자가 된 이유, 북한의 천주교 실태는 어떤가?
☞ 천주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있다.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과정은 생략), 준비를 하면서 불안감과 두려움이 들게 되었다.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그 무속인에게 소개받은 사람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남한에 와서 정착하는 어려운 과정을 되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 나눔 요약

분단의 문제가 우리의 사목적인 문제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였다. 미디어로 접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던 것과 많이 다름을 알게 되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관심이나 생각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된 것 같다. 교구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 한민족이라는, 동포라는 말이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된다.

- 민화위에서 실질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지원이 있다.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활발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방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북한 물품 등 현실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 북한은 우리 드라마를 보면서 문화가 바뀌어 가는데, 우리는 정작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은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된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바뀌도록 접촉할 수 있는 기회,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 현실적으로 다가오는게, 교구 사제단 안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반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사제단 안에서 많은 신부님들이 민화위, 또는 북한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교육이나 기회도 중요하지만, 사제단의 인식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현실적으로 민화위와 같은 기관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사제단 안에서의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 '정세미'와 같은 시사적 사회적 인문학 강의가 주변에 많지만, 잘 참여하지 않는다. 내가 하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듯. 남이 하면 멋있고 잘 하는 것 같지만, 정작 본인은 참여하지 않는 현실이다.

- 사목적인 측면에서 만일 통일을 떠나서 북한으로 선교를 갈 수 있게 된다면, 예전 우리나라 초기 선교에 일명 '밀가루 신자'정도의 수준부터 출발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사목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 언어에서 나오는 정서적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미리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통일에 대해서는 늘 당연하게 생각을 해왔다. 그런데 그만큼의 관심은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북한의 장점을 듣게 되었을 때,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어느 때부터 썩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준비를 잘 해서 북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북한의 순수한 모습(?), 좋은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똥철학(?)이 아니라, 젊은 신부들이 이러한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그래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간되 되었다고 생각한다.

- 사회적, 정치적, 여러 가치관을 떠나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간혹 어떤 신부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사목적'이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된다. 후배 사제들이나 공동체를 흐리게 만들 수 있는 문제들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구체적인 사목적 준비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제단 안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로 함께할 수 있는 계획도 필요한 것 같다. 사제단 안에서의 성찰이 필요함을 느끼는 반성의 시간이었다.

- 강사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지하철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목해야 하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을지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다. 내 옆 자리를 이웃에게 내어줄 여유조차 없는 현대 사람들에게 민족의 평화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들과 큰 차이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만 갇혀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쌓고 있는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꼭 북한에 대한 측면이 아니어도)

- 탈북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반대로 한계도 있다.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강조한다는 한계가 있는 듯하다.
- 국제정세
- 남북관계(정치적)
- 우리 안에 분단문제(빨갱이)
-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갈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 북한에 대해서 바라볼 때, 경제적인 차이만 가지고 접근할 수는 없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던 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고정관념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강의해주신 강미진 기자님은 북한에서 군에 관련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한계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계층에 삶을 살아온 분들을 초빙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